

4주차

일본군 ‘위안부’ - 침묵을 강요당한 피해자 (1940년대)

김 지 민

학습목차

01.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등장

- '위안부' 용어 문제
- '위안소' 설치의 논리
- '위안부' 제도의 특수성

04. '위안소' 운영과 생활

- '위안소' 운영
-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 인권 유린의 범죄

학습목표

02. 여성들의 동원 과정

- 강제 동원의 근간이 마련되다
- 끌려간 여성들

05. 전쟁 후에도 끝나지 않은 피해

- 생존과 귀환
- 후유증

학습내용

03. 그녀들의 이야기

- 피해자들의 증언
- 공통된 피해

5차시
전쟁 후에도
끝나지 않은 피해

학습목차

학습목표

- 일본군 ‘위안부’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겪어야 했던 피해와 고통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종전 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와 후유증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생존과 귀환
- 후유증

생존과 귀환

이번 차시에는...

- 전쟁이 끝난 후 피해자들의 또 다른 피해 상황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일본의 항복
그렇다면
전쟁터에 있던 위안부들은?**

전쟁 중 '위안부'들의 상황

- 전장이나 군부대에 감금된 상태
- 폭격과 공습의 위험에 노출
- 풍토병, 성병에 시달리고, 일본군이 주사한 수은 및 마약에 중독되기도

전쟁이 끝난 후 '위안부' 여성들의 곤경

1

생존 그 자체

- 여성들은 병사, 자살, 혹은 퇴각하는 일본군에 방치 및 집단 학살
- 사망한 여성들의 시신은 그대로 방치
- 대다수의 여성들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

전쟁이 끝난 후 '위안부' 여성들의 곤경

2 보호받지 못한 채 귀환

- 생존한 경우에도 말이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험난한 과정



중국 송산지역에서 발견된 후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 심문을 받는 '위안부'들, 1944. 9. 8



버마 미치나 지역에서 발견되어
연합군의 포로가 된 '위안부' 여성들, 1944



중국 송산에서 발견된
조선인 '위안부'들, 1944. 9. 3

전쟁이 끝난 후 '위안부' 여성들의 곤경

3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 이옥선 할머니: 중국 지린성 '위안소'에서 나와 중국에서 정착
- 2000년에야 한국으로 영구 귀국

후유증

귀향 후 피해자들의 후유증

- 육체적 후유증: 성병, 불임, 폭력과 고문으로 인한 상처, 약물 중독
- 심리적 후유증: 불안감과 두려움
- 사회적 낙인: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회적 편견
- 경제적 어려움
- 한국전쟁의 여파

“

날마다 얻어맞아서 뺨에는 굳은살이 생겨 이제는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가 않아요. 고막이 터져서 귀도 한쪽밖에 안 들립니다. 위안소에서 한 문신이 부끄러워서 목욕탕에도 못 가고요. 그래도 살아남은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해야겠지요.”

“젊을 때는 매일 매일 군인들의 꿈을 꾸었습니다. 위안소에 대한 기억은 몇 년이 지나도,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혀서 술 퍼마시고 행패를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봤자 억울한 심정을 달랠 수도 없고 속상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째서 일본의 전쟁에 조선의 철부지 아이들이 끌려가서 그런 고생을 해야 했는가, 생각하고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

송신도 할머니의 삶 (출처: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정신적인 상처와 후유증

- 어린 나이에 사회의 권위있는 남성들에게서
보호받지 못하고 기만과 폭력의 피해를 당한 상처
-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두려움을 느낌

“내가 이제 나이가 이만치나 먹고 제일 무서운 것은 일본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거, 제일 그걸 내가 떨었거든. 언제나 하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끌려가서도 봤지만도 사람 죽이는 걸 너무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는 사실 무서워서 (말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어).”

“(일본이 나를) 죽인다는 게 무서워서 젊어서는 사실 하고 싶어도 말을 못했어. 그랬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분하고 원통해서 죽갔어.”

김학순 인터뷰, “나의 소원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마지막 증언,”
뉴스타파 목격자들 (2016. 1. 26).

피해자 문필기의 증언

“어디가 있어도 안정이 안 되더라.

안정이 안 되고 내가 왜 신세가 이 신세를 어떻게 면하나. 근데 또 생각하면 갈 곳도 없고 이곳에 가도 그렇고 저곳에 가도 그렇고 친척네 가도 그렇고. 옛날에는 친척이라고 하면 그렇게 잘못될까 싶어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친척이면 친척, 지금도 그래.

반가운 사람이 없어 반갑다 할 사람이 없더라구. 누가 그걸 알아주겠어.

알아줄 사람도 없지만. 평생 가슴에 못 박고 잊지 못할 상처를 안고 죽을란지도 몰라.”

문필기 할머니의 삶 (출처: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피해자들이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화병, 강박증, 환각, 히스테리, 우울증 등

1990년대, 사회적 인식의 변화

- 세계적으로 성폭력을 힘과 권력에 의한 범죄로,
성범죄를 본격적인 형사법으로 다루게 됨



| 김학순 (1924~1997)

1991년, 최초의 공개증언

김학순 할머니

이번 차시에서는...

- 전쟁 후에도 계속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와 후유증

이번 주 강의에서는...

-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형성, 여성들의 피해와 그 의미 등
- 이 문제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1990년대 이후
'위안부' 운동의 진행과 성과를 함께 살펴야 함

SOURCES

[출처01] 미국국립문서관리청(제공 서울대 정진성 연구팀, 디지털서비스 서울기록원)

[출처02] 미국국립문서관리청(제공 서울대 정진성 연구팀, 디지털서비스 서울기록원)

[출처03] 미국국립문서관리청(제공 서울대 정진성 연구팀, 디지털서비스 서울기록원)

[출처04] 아카이브814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디지털 아카이브 (<https://archive814.or.kr>)

- 강정숙, “‘위안부’, 정신대, 공창, 성노예,”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편, 《역사용어 바로 쓰기》 (역사비평, 2006).
- 공준환, “연합군 자료를 통해 본 버마의 일본군 ‘위안부’ 제도,” 《동북아역사논총》 66 (2019).
- 김동엽, “필리핀에서의 ‘위안부’ 문제와 사회적 인식,” 《웹진 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2019)
- 김지민, 《그녀의 일생》 (소울하우스, 2021)
- 박도 엮음, 《일제강점기》, 눈빛출판사 (2010)
- 얀 러프 오헤른, 최재인 역, 《나는 일본군 성노예였다》 (삼천리, 2018)
-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역, 《일본군 군대위안부》 (소화, 1998).
-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역사공간, 2000).
- 정진성, “전시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한국여성학》 19 (2), (2003).
- 주진오 외, 《한국 여성사 깊이 읽기》 (푸른역사, 2013)
- 황병주, “연합군번역통역부 조사보고서 120호,” 《웹진 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2019. 7. 30),
<http://www.kyeol.kr/node/168>.

Jimin Kim et al., “Teaching About the Comfort Women During World War II and the Use of Personal Stories of the Victims,” *Education about Asia* 24(3) (2019)

Margaret Stetz, “Teaching about the “Comfort System” of WWII: The Hidden Stories of Girls,” In S. K. Danielsson ed., *War and Sexual Violence: New Perspectives in a New Era* (Paderborn, Germany: Verlag Ferdinand Schöningh, 2019).

Maria Rosa Henson, *Comfort Woman: A Filipina's Story of Prostitution and Slavery under the Japanese Military* (Rowman & Littlefield, 2016)

Peipei Qiu et al., *Chinese Comfort Women: Testimonies from Imperial Japan's Sex Slav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Radhika Coomaraswamy,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4/45: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January 4, 1996).

Sarah C. Soh, “The Korean ‘Comfort Women,’” *Asian Survey*, Vol. 36 (12) (December 1996).

Yuki Tanaka, *Japan's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and Prostitution during World War II and the US Occupation* (Routledge, 2002).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comfort women: Hearing before the Subcommittee on Asia, the Pacific, and the Global Environment of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ouse of Representatives, 110th Congress, 1st Session (2007, February 15) (Washington, DC: U.S. Printing Office)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 자료 컬렉션, 동북아역사넷 웹사이트, contents.nahf.or.kr.

서울기록원, 일본군‘위안부’ 컬렉션, archives.seoul.go.kr

아시아여성기금 웹사이트, awf.or.jp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공문서 컬렉션, WAM 웹사이트, wam-peace.org.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웹사이트, ohchr.org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화진·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